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많은 사람들이 지키며 사는 미덕들. 가령 용기 있는 행위, 손익을 따지지 않는 정직,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내미는 마음씨는 애써 '미덕'이라고 할 것도 없는 미덕이다. 그런데도 '미덕'이라 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 미덕의 가치들이 너무나 쉽게 전복되거나 파괴되기 때문이다.

미덕은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익숙한 방법이며 삶 자체에 미덕의 의미 상실은 더 치명적이다. 미덕은 왜 자체로서 힘을 갖지 못하는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경쟁률 높은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것이 아닌 탓인가? 브레히트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작품 '역적어멈과 그 자식들' 속에서 다룬다.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는 의학을 전공하고, 독일 통일 전 동베를린

미덕은 어떻게 악덕이 되는가?

에서 주로 활동한 극작가 겸 연출가이며 시인이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브레히트는 의사보다는 연극 일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연극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작품을 썼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역적어멈과 그 자식들'이다. 그는 나치를 피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했는데, 당시 망명했던 스웨덴에서 유럽의 30년 전쟁(1618-1648)을 배경으로 이 작품을 썼다.

작품의 계기는 나치 전쟁에 대한 독일 주변국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표면적 입장은 전쟁을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데에 바쁘고, 적당히 공조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위들. 이 이중적인 태도를 역적어멈, 안나 피일링을 통해서 비판한 것이다. 역적어멈은 세 남매와 함께 목숨 줄인 행상 마차를 끌고 '빵이 부패하기 전에 팔 생각으로 포화를 뚫고' 군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지 가는 중군 행상인이다.

물론 돈만 벌 수 있다면 총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역적어멈의 목표 역시 어느 부모들 처럼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이다. 세 명

의 자식들이 각자 성이 다른들 무슨 대수인가! 30년이라는 긴 전쟁을 겪다 보면 더한 일도 자연스럽다는 태도다.

얌은 행상 마차와 성이 다른 세 자식이 전부인 역적어멈에게는 유럽의 30년 종교전쟁은 고맙기만 한 돈벌이 기회이자 축복이다. 이런 역적어멈에게 가장 큰 불행은 평화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쟁이 끝났을 때, 역적어멈은 실망과 분노의 심정을 표현하며 이렇게 외친다. "전쟁은 장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이란 중사 자들을 잘 먹여 살린다는 것이야. 평화가 나를 파멸시켜요."

그 사이 용감하게 군대에 간 큰아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정직함으로 늘 칭찬받던 작은 아들도 군대의 회계 금고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딸은 전쟁의 상흔으로 이미 청각과 언어 장애를 겪는 처지에도 복을 쳐서 적의 공격을 알리다가 총에 맞아 숨진다.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기회, 영웅의 훈장을 달 기회, 또는 현재의 권력과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좋은 수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역적어멈처럼 모든 것을, 자식들마저 내줘야 하는 비극이다. 역적어멈이 역적

스럽게 돈을 버는 동안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용기·정직·연민의 미덕을 행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독하게 버는 돈이 곧 자식들의 목숨 값인 셈이다. 이보다 더한 상실의 삶, 소외되고 모순된 삶이 또 있겠는가.

브레히트는 30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직접적인 문제만을 말하지 않는다. 전쟁은 은밀하게 고착되는 현실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인식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은유다. 그래서 전쟁은 '미덕'이 '까지' 미덕으로 지켜질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모순과 이익의 뒷에 걸려서, 치러야 할 대가를 외면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상징이다.

역적어멈만 해도 그렇다. 자식들과 먹고살기 위한 '역적스러움'이 문제 될 것이 무엇인가? 다만 '그대'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는 맹목적인 현실 순응이 미덕의 가치 전복을 가져온다. 브레히트가 "그렇게 낭만주의적인, 열빠진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오!"라고 일갈하는 이유다. 한 군인이 역적어멈에게 "전쟁에 불어서 먹고살려면 무엇이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법이지"라고 하는 말이 뼈아픈 물음으로 일컫는다. 오늘날 우리 또한 또 다른 역적어멈이거나 혹은 역적어멈인 것은 아닐까?

社說

‘비대면 추석’ 그래도 귀성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올 추석 연휴는 사상 초유의 '비대면 명절'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귀성 등의 이동 자제를 권고했고 국민들도 고향 방문을 피하는 분위기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4개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귀성 자제 등 정부의 비대면 추석 권고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86%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확산이 '민족 대이동'으로 상징되는 한가위 풍속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다. 여기에는 닷새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갈림길일 것이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특별 대책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각종 모임은 금지되며, 추석맞이 마을 잔치와 민속놀이 대회는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동 자제 권고에 공감하면서도 고향을 방문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감염을 우려해 접촉을 피해 왔지만 추석만큼은 부모 형제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탓이다.

이를 반영하듯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전한 귀성 방법을 묻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면 귀성·귀경길에는 차량 안에서 식사와 휴식 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휴게소에 들를 경우에는 화장실만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친지를 만날 때도 포용이나 악수보다는 목례나 주먹 인사로 대체하고 식사도 직계 가족만 단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과 가족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않아야겠다.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속 상임위의 피감 기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치권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과연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과거에도 슬하에 거론됐지만 결국은 무산되곤 했기 때문이다. 2013년 권익위가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7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막판에 제외됐던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분회의에 가 보지도 못하고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에 발의된 바 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직무 관련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최근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박덕흠 의원과 삼성 관련 윤창현 의원,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주 관련 김홍걸 의원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업무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이제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이번엔야말로 '기득권'에 매달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황수건의 어느 날 서논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나는 애써 모른 척한다. 황수건 머리 위로 부서지는 하얀 달빛은 애상적 이면서도 쓸쓸한 이미지를 드리운다.

'달밤'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가족인 경우도 있다. 이종문 시인의 '달밤'은 소를 모티브로 그리움과 추억을 환기한다. "그 소가 생각난다, 내 어릴 때 먹었던 소 / 셀머가 죽을 품 못 놓이타는 강물 위로 / 두 뿔을 운전대 삼아, 타고 건너오곤 했던// 큰누나 혼수 마련에 냐다 팔아먹어

바린, / 하지만 이십 리 길을 터벅터벅 걸어와서 / 달밤에 대문 밖에서 음모-하며 울던 소" 어

찌런 달밤 대문 밖에서 울던 저 소는, 지난여름 폭우를 피해 구레 사성암까지 피신했던 소 때의 초상이었을까도 모르겠다.

올 추석은 '민족 대이동' 대신 '비대면 명절'로 기록될 것 같다. 그럼에도 캄캄한 하늘에 휘영청 보름달이 떴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가슴 졸이고 세파에 시달린 이들을 위로해 주는 은은한 달빛. 포근하고 여유로운 모두의 추석을 기원한다. /박석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내는 작은 위로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벌써 9월이 간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과 가을 벌레 붉게 익어 가는 담쟁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여유도 없이 이 좋은 계절이 속절없이 가고 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지난 수개월간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지금도 여전히 활개를 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찼던 해외 여행도, 슬리퍼차림으로 편하게 들러 저녁을 해결하던 동네 단골 식당도, 하얀 이 드리내며 깔깔 웃던 아이들의 해맑은 등골길 모습도. 영원할 것 같았던 소소한 일상들이 그림고 그리운 추억이 돼버렸다. 마스크 없는 외출은 생각할 수 없고, 티비(가) 앞에서의 혼밥·혼술도 공상맛지 않은 일상이 되고,

이른 저녁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만석이다.

'세상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시인과 촌장의 노랫말처럼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감하면서 하루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길 소망해본다.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 9월 10일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지급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돌봄 대상 아동(중학생 이하 전 아동) 등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의 선별 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제9차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다. 정부 지원 대상인 영유아부터 중학생까지를 제외한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포함하고,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와 임신부에게도 지원을 결정했다.

비대면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한 광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도 1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신부는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이기에 때문에 코로나19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감염될 경우 유산이나 태아의 기형, 조산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에게도 3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애 가장 빛나고 행복해야 할 순간을, 축하게 제한과 뷔페시설 이용 금지, 최소 보증 인원 담보 및 위약금 등의 문제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청년 출발부터 임신,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 주기별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행복한 삶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 5월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 시리즈Ⅲ을 발표하고 임신부들의 고용 유지와 우선 배려, 청년들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민생 대책이 코로나19로 받은 고통과 손실에 비하면 보상이랄 것도 못되는 것이지만 큰 곳간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래 세대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늪에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 내고 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백신'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웃으며 옛말할 날이 올 것이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그날 우리 서로에게 "당신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기고

덧글 문화, 이대로 좋은가



여동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

역사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면서 시인들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순환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작년의 여름과 올해의 여름은 다릅니다. 작년에는 한 개도 발생하지 않았던 태풍이 올 여름에는 세 개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고 작년에는 장마 기간이 30일 정도였는데 올해는 56일 동안이나 장마가 계속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올해는 초봄부터 발생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만 보아도 지금의 나는 작년의 내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 관혼상제의 모습도 그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 상대자도 그냥 만나서 좋으면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부모들에게 통보하면 그만입니다. 상을 당했을 때도 삼수를 지내지 않고 3일장으로 끝내 버리는 집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합동으로 제사를 모시자거나 삼수를 없애자거나 조상님들 이장을 하자거나 하는 결정은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보통은 가족 회의나 일가 친척들과 상의를 해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끝까지 자기의 의견이 맞다고,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꼰대'라고 합니다. '꼰통'이라고도 합니다.

꼰대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상대적으로 자신은 열린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꼰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첫째 항상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으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합리적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필터링의 과정이 없습니다. 편 가르기가 조선 시대의 봉당을 가져왔고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을 가

져왔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하지만 아닌 것은 아무리 자기 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키워야 합니다. 덧글을 읽어 보면 그 나라 국민의 민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합니다. 언론은 불편부당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방송이나 신문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됩니다. 시정물이나 구독자 수를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 투표가 왜 전광판에 공개가 됩니까? 당론에 반하는 소신 투표를 하면 정계나 다음 공천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특징은 양극화된 사고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깔 중 흑백의 두 가지 색깔만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이 접하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에 입각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우파나 좌파처럼 모든 것을 양분해서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 사고, 즉 '전부 아니면 전부'라는 극단적

인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들이 각자 각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중립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본을 보이지 않을 때, 공정하지 못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국민은 더욱 더 분노하고 나누어집니다. 법의 상정이 저울이듯이 우리의 생각도 저울이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편이 갈라지다 보면 그 진보와 보수는 또 편이 갈라져 국민은 사분오열이 되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신문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 앞에서는 하나로 힘을 모아야 세계 열강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꼰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고 대중적인 경기에서 서로 양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편을 가르는 여론 조사와 덧글 문화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b>無等鼓</b>	
<p>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秋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가위·가배·가위라고도 부르는 추석은 음력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예로부터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둥근 보름달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했다.</p> <p>그래서 추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달밤이다. 윤오영(1907~1976)이 1974년에 발표한 '달밤'이라는 수필이 있다. 낙향한 저자가 어느 날 김</p>	<p>황수건의 어느 날 서논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 나는 애써 모른 척한다. 황수건 머리 위로 부서지는 하얀 달빛은 애상적 이면서도 쓸쓸한 이미지를 드리운다.</p> <p>'달밤'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가족인 경우도 있다. 이종문 시인의 '달밤'은 소를 모티브로 그리움과 추억을 환기한다. "그 소가 생각난다, 내 어릴 때 먹었던 소 / 셀머가 죽을 품 못 놓이타는 강물 위로 / 두 뿔을 운전대 삼아, 타고 건너오곤 했던// 큰누나 혼수 마련에 냐다 팔아먹어</p> <p>바린, / 하지만 이십 리 길을 터벅터벅 걸어와서 / 달밤에 대문 밖에서 음모-하며 울던 소" 어찌런 달밤 대문 밖에서 울던 저 소는, 지난여름 폭우를 피해 구레 사성암까지 피신했던 소 때의 초상이었을까도 모르겠다.</p> <p>올 추석은 '민족 대이동' 대신 '비대면 명절'로 기록될 것 같다. 그럼에도 캄캄한 하늘에 휘영청 보름달이 떴으면 좋겠다. 코로나에 가슴 졸이고 세파에 시달린 이들을 위로해 주는 은은한 달빛. 포근하고 여유로운 모두의 추석을 기원한다. /박석천 문화부 부장 skypark@</p>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담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